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 그 모호한 정체성과 위상

김 정 숙(배재대학교)

서 론

본 론

1. 마그레브와 마그레브 문학
2.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발생과 전개
3.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모호한 경계/위상

결 론

서 론

프랑스어권 francophonie 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된 프랑스어 사용 지역을 말한다. 프랑스에 인접한 벨기에, 스위스 외에도 캐나다 퀘벡,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구식민지를 포함하는 지역들이다. 프랑스의 국제적 위상을 내세우거나 프랑스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언급하는 이 지역들에 대해 그동안 우리 연구자들이 진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던가? 설령 관심을 가졌다 해도 정통적이고 주류적인 관심에서 벗어난 특이한 호기심 정도로 평가되어왔던 것은 아닐까? 퀘벡학회의 활동과 ‘네그리튀드’와 관련된 연구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프랑스어권에 대

한 우리의 지식은 크게 내세울 것이 없다. 2억 인구에 대한 지역학적 지식이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더라도, 프랑스어 문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어권 문학을 무관심 속에 계속 방치해둔다는 것은 프랑스의 “자국 중심주의와 엘리트주의”¹⁾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문학 전공자가 자국 영토 밖에서 생산되는 프랑스어 문학을 모른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어느 프랑스 문학 연구자의 주장은²⁾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프랑스어권 문학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어 문학 연구가 연구로서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연구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포괄하는 마그레브 지역의 프랑스어 문학 *la littérature maghrébine d'expression française* 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프랑스와 근거리에서 위치한 이 지역은 절대 다수 인구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소비자

1) ‘프랑스 문학’이라는 범주의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문학사의 역할인데, 문학사가들의 관점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프랑스 자국의 영토를 벗어난 지역에서 생산된 작품들과 프랑스인이 아닌 작가들에 의해서 생산된 작품들은 배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태생의 루소, 벨기에 태생의 프레베르처럼 일부 작가들이 선별적으로 프랑스 문학의 범주로 수용된다.

2) “La tendance à l'exhaustivité paraît ainsi être une des conditions de la crédibilité scientifique de cette discipline: il est difficile, par exemple, d'admettre qu'un étudiant de lettres modernes puisse accomplir tout son cycle d'études en ignorant des phénomènes comme la littérature de colportage ou l'existence d'une production littéraire de langue française hors de France.”, Bernard Mouralis, ‘Les littératures dites marginales ou les’ contre-littératures”, in Henri Béhar, Roger Fayolle(sous la direction de), *L'Histoire littéraire aujourd'hui*, Paris, Armand Colin, 1990, p. 35.

이자 생산자로서 동시대 프랑스 문학에 참여하고 있다. 옛 프랑스 식민지였던 이 지역에서 발생한 프랑스어 문학은 식민 통치 종식을 기점으로 소멸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학으로, 양적·질적 역동의 측면에서 그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프랑스 문학 내부에서도 들뢰즈적 의미에서의 “차이의 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개별 작가나 작품의 연구에 앞서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는 예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발생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일별하고자 하며, 특히 문학의 경계와 정체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을 작가가 마그레브인이라는 점만으로 설정되는 하나의 범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랑송 Lanson 이 말하듯 한 국가의 문학이란 “글을 쓰는 저명한 작가들뿐 아니라 글을 읽는 보이지 않는 군중의 활동”³⁾까지 포괄하는 다면적 활동이라고 했을 때,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작가의 국적을 제외한다면 문학 활동의 큰 부분이 마그레브 밖, 프랑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작품들이 프랑스에서 출판되고, 프랑스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평가나 연구 역시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범주의 정체성과 위상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그 문제를 적시함으로써 이미 설정되어 있는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이라는 범주가 지닌 복잡다기한 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3) “(...) le tableau de la vie littéraire dans la nation, l’histoire de la culture et de l’activité de la foule obscure qui lisait aussi bien que des individus illustres qui écrivaient.”, 인용, *Ibid.*, p. 31.

본 론

1. 마그레브와 마그레브 문학

마그레브는 지중해 남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아, 리비아 이 5개 국가를 묶어 지칭하는 단어이다.⁴⁾ 우리에게 북아프리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한 것은 프랑스의 점령 통치기간 동안 그 말이 널리 통용되었던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아랍어 지역 명칭인 마그레브는 그러므로 식민 통치 이전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복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마그레브는 지리·역사·종교·언어·문화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역단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지역 국가들이 보여주었던 상호 지지를 통한 단합, 그리고 독립 이후 지역 국가들 간의 결속 의지를 통하여 더욱 확고한 지역단위로 부각되고 있다.⁵⁾

마그레브는 “서쪽의 섬”이라는 아랍어의 의미가 말해주듯 하나의 거대한 섬처럼 주변 지역과 격리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유럽과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이남과 기후나 인종적으로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 불모의 사막 지대가 있어 나머지 중동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다른 종교가 거의 없이 전 인구가 이슬람교로 통일되어 있으며, 7세기부터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아랍어 역시

4) 통상 5개국 전체를 대마그레브 Grand Maghreb, 모리타니아와 리비아를 제외한 3개국을 소마그레브 Petit Maghreb 라고 부른다.

5) 마그레브 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공동체의 명칭을 아랍마그레브연맹 Union Maghreb Arab 으로 명명하고 있다.

지역 전체에 동질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 쪽 경계에서 다른 쪽 경계에 이르는 마그레브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베르베르족의 존재 또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요소로서, 약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베르베르족은 고유한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다른 이슬람 지역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빚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동쪽 이슬람 지역과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신앙 실천의 형식에서나 문화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역할 때문이다.

이 지역의 국가들을 묶는 또 다른 요소는 이탈리아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프랑스어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그레브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3국에서는 프랑스어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 정체성 회복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랍어화 정책은 아랍어가 가진 내재적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랍어는 꾸란 경전의 신성한 언어를 모델로 하는 고전아랍어와 실제 일상생활에서 언중이 사용하는 민간아랍어로 나뉘어 있으며, 둘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중간아랍어 *médian* 가 있지만, 현재 인구의 약 50% 정도를 교육하는데 그치고 있어⁶⁾ 아랍어화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랍어로 축적된 지적 역량의 부족은 교육적 차원에서 프랑스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교육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프랑스어 사용 인구를 오히려 확대시킴으로써 프랑스어 사용자가 독립 이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또

6) Abderrahim Youssi, "Un trilinguisme complexe", in Camille et Yves Lacoste,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 Paris, La Découverte, 2004, pp. 155~162.

한 라디오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프랑스의 문화를 접하고 있다는 점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자국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 역시도 프랑스어 수요를 유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마그레브는 그러므로 적어도 3개 언어가 공존하는 다언어지역이다. 원주민 베르베르족의 언어, 아랍어, 프랑스어가 각기 다른 계층에 의해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병행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작가 앗시아 제바르 Assia Djébar 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4개라고 말하는 것은 마그레브인들의 보편적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⁷⁾ 이 같은 언어의 혼재에 따라 언어예술인 문학에도 최소한 3개의 전통이 병존하고 있다. 우선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하다”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베르베르족의 구비문학이 있다. 주로 여성들에 의해 전승된 운문 형식의 구비문학은 라디오와 TV에 청중을 빼앗기기 전까지 지속되어왔던 마그레브 지역의 서민문학이다. 또한 프랑스 점령기에도 명맥을 유지했던 아랍어 문학이 있는데, 강한 종교적 색채와 다른 지역 아랍 문학과의 교류 등의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발전해왔으며, 시와 단편 장르가 특히 발달했다고 한다. 프랑스어 문학은 20세기 초 미약한 형태로 시작되어 식민 통치 말기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앞의 두 문학 전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7) “(...), nous disposons de quatre langues pour exprimer notre désir, avant d’ahaner: le français pour l’écriture secrète, l’arabe pour nos soupirs vers Dieu étouffés, le libyco-berbère quand nous imaginons retrouver les plus anciennes de nos idoles mères.(...)”, Assia Djébar, *L’amour, la fantaisia*, Paris, Albin Michel, 1995, p. 203.

8) “Les sociétés berbérophones ont produit une expression littéraire orale d’une très grande richesse et d’une très grande qualité, digne, sans aucun doute, de figurer au premier rang du patrimoine des cultures orales du monde entier.”, *Ibid.*, p. 189.

의 식민 통치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프랑스어 문학은 식민 통치의 형식과 기간이 서로 달랐듯 국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모로코(1912~1956)와 튀니지(1881~1956)는 보호령으로 명목상으로나마 자치정부가 존재하여 사회제도나 지식인 계층에 의해 어느 정도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었다면, 프랑스 국토의 일부로 편입되어 1830~1962년 사이 132년 동안 식민 정부의 통치 하에 있었던 알제리는 철저한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그 결과 알제리의 프랑스어 문학은 양적인 면에서 세 나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발생과 전개

마그레브에서 프랑스어 문학이 발생한 시점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있다. 초기 작가들의 작품은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친프랑스적 내용의 테제소설로, 작가의 이름 정도만 언급될 뿐 문학적 측면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이라는 자료체를 구성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이 생산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30년 후인 1950년대 식민 통치 말기로, 이것은 3국 모두에 공통된 사항이다. 이 시기는 세 나라가 순차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에 해당하는데, 왜 통치 말기에 프랑스어 문학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접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프랑스어 문학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작가들이 등장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한 세기가 넘게 식민종주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프랑스어 문학의 불모지였던

이유는 프랑스의 식민 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식민 정책의 큰 축이 문화적 동화와 더불어 프랑스어 사용이었지만, 당시 고등 교육을 받은 피식민지인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예컨대 1832년부터 알제리를 점령하기 시작했던 프랑스는 기존 교육기관이었던 이슬람 사원을 체계적으로 폐쇄했지만, 카빌 지방 Kabylie 을 제외하고는 교육기관 설립을 억제하여 점령 후 약 60년이 지난 1890년 취학 연령 아동의 단 2% 정도만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그 대부분은 중등교육 과정에 진입하지 못했다. 독립전쟁이 발발했던 1954년까지 점차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한 통계는 1962년 독립 당시 알제리에서 90%에 달하는 인구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⁹⁾ 한마디로 문학의 생산이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척박한 문학 환경 속에서 “52년 세대”로 불리는 일군의 작가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의 소설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이주민들 les colons 덕분이었다. 몰루드 페라운 Mouloud Feraoun, 모하메드 딘 Mohammed Dib 과 같은 알제리 작가들의 작품을 처음 출판한 것은 알제리 거주 프랑스인으로 쇠이유 Seuil 출판사의 편집장이었던 에마누엘 로블레스 Emmanuel Roblès 였으며, 이후에도 많은 문학작품들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비록 문학 활동을 프랑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긴 했지만, 그 시대의 알제리 작가들은 이전 작가들의 협력적 태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다. 식민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체제 전복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지언정, 식민 정부의 착취로 인한 물질적 빈곤과 지속적인 억압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를 전달함으로써 공식 담화가 은폐하고 있는 피식민지의 현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빈

9) Chems Eddine Chitour, *L'Algérie: le passé revisité: Une brève histoire de l'Algérie*, Alger, Casbah Editions, 2004, pp. 125~132.

자의 아들 *Le Fils du pauvre*』, 『대지와 피 *La Terre et le Sang*』, 『화재 *L'incendie*』 등의 대표작들은 그 제목만으로도 피식민지 사회와 개인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과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절대다수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제 이 작품들이 알제리 국민의 민족의식 각성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식민 통치의 부당성을 고발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적·민족적 요청에 부합한 참여문학이었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한다.¹⁰⁾

독립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전쟁에 직간접으로 개입해 활동했던 대다수 작가들은 실상 쉽지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자칫하면 좌절과 박탈감 속에서 투쟁을 부추기는 저급한 선전문학이 되거나 혹은 외부의 동정적 시선을 의식한 과장된 보고서가 될 위험이 있었다. 모든 작가들이 그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작가들은 “잔인함의 구체적 실상을 묘사하는 것은 비참함만을 가져다줄 것이며 자기소모라는 함정에 빠지게 할 뿐”¹¹⁾이라는 성숙한 의식을 토대로,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밀도 있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하메드 딥이나 카텡 야신 Kateb Yacine 과 같은 작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카텡 야신의 『네즈마 *Nedjma*』는 독창적인 서사 구조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높은 상징성 등 문학적 완성도의 측면에서 마그레브 소설문학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으

10) 참고문헌에 언급되어 있는 대부분의 연구서들과 문학사전들은 이 시기 작가들의 작품이 독립전쟁의 이념을 주제로 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 décrire l’horreur dans ses manifestations concrètes lorsqu’on n’a pas à dresser un procès-verbal serait se livrer presque à coup sûr à la dérision qu’elle tente d’installer partout où elle émerge. Elle ne vous abandonnerait que sa misère et vous ne feriez que tomber dans son piège: l’usure.”, Mohammed Dib, 재인용, Charles Bonn, *Le Roman Algérien de langue française; vers un espace de communication littéraire décolonisé*, Paris, L’Harmattan, 1985, p. 14.

로서 현재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¹²⁾ 구전되어 오던 마그레브 지역의 전설과 신화에서 취한 테마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현하여 마그레브 소설문학의 중요한 참조점이 되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해 알제리 프랑스어 문학 연구자인 샤를 본 Charles Bonn 은 “기억할 수 없는 부족의 시원으로부터 식민 통치 및 이민 문제를 포함한 현재를 잇는 역사와 직접 관련되어”¹³⁾ 알제리의 역사적 의미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마그레브 작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관심사는 프랑스의 문화수용 acculturation 문제다. 강도와 기간은 달랐지만 프랑스의 언어 및 문화 동화정책을 강요받았던 마그레브 3국에는 그들의 전통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서구의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이입되었다. 가장 직접적으로 이에 노출된 피식민지 지식인인 작가들에게서, 양립하기 어려운 두 문화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작가들은 “문화적 경쟁을 파생시키는 다언어주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반동적 세력들, 잠재된 대치국면들이 격화되는 분열의 상황”¹⁴⁾에서 야기되는 갈등,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해야 했으며, 이것은 타협을 통해 순조롭게 독립을 성취한 모로코와 튀니지 작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동화되었던 서구적 가치들을 거부하고 전통적 가치관을 되찾으며 조국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

12) 참고문헌에 언급된 모든 연구서들은 이 소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한다.

13) “L’écriture de *Nedjma* transcende l’anecdote pour être à travers la multiplicité et l’interpellation de cette anecdote même, en prise directe avec l’Histoire, depuis les origines immémoriales de la tribu et le récit du Fondateur, jusqu’à l’actualité de la présence coloniale ou de l’émigration.”, *Ibid.*, p. 14.

14) Marc Gontard, *Violence du texte. Littérature marocaine de langue française*, Paris, L’Harmattan/SMER, 1981, p. 8.

으로 결말지어지는 소설의 줄거리는 작가들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몰루드 마메리 Mouloud Mammeri 의 작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식된 프랑스 문화와의 거리두기가 소설의 허구적 결말처럼 단순명료하게 이루어질 수만은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 식민종주국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작가 자신이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었다. 카땀 야신에서 아시야 제바르까지 대부분의 마그레브 작가들이 거의 강박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던 프랑스어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도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버려지고 훼손되었던 문화적 전통을 회복하는 것은 마그레브 작가들이 스스로 부과했던 과제였지만, 그것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풍습이나 제도에 대한 절대 긍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식민 정부의 부당함을 적시함과 동시에 전근대적 가치관 속에 경직된 채 낙후되어 있는 자신들의 사회도 이성적으로 관찰했다. 때로 이러한 성찰은 통렬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투쟁의 적이 사라진 독립 이후에는 더욱 본격적이고 격렬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하나의 흐름으로 축소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한 문학적 형식과 주제를 구사했던 작가들이지만, 라시드 부제드라 Rachid Boudjedra, 모하메드 카이르-에딘 Mohammed Khaïr-Eddine, 압델케비르 카티비 Abdelkébir Khatibi 와 같은 1970년대 마그레브 작가들은 국가, 사회, 가족제도를 비롯한 기존의 낡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프랑스어 문학 창작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띠게 되는 시기다. 세 나라의 독립이 완료되고 난 후 10여 년이 지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이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단순히 현상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초기인 1950년대 작가들이 여전

히 창작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작가군에 합류한 작가들의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의 문화 및 언어와 자신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은 프랑스어 글쓰기가 내부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외국 문학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마그레브의 문화가 여러 문화를 담고 있는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문화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인정하며 프랑스어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본다.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과거 역사를 내세우는 상황 논리나 식민종주국에 독립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소극적 논리가 아니라, 프랑스어가 제시하는 여러 가능성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프랑스어의 비판적 기능을 높이 평가하는 타하르 벤 젤룬 Tahar Ben Jelloun의 경우¹⁵⁾나 프랑스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복자를 내부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앓시아 제바르와 같은 작가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프랑스어 글쓰기는 강압적으로 강요된 억압의 언어가 아니라 표현의 폭을 넓히는 긍정적 가치의 언어인 것이다.

3.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모호한 경계/위상

모든 문학 생산물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범주화된다. 특정한 시대, 유사한 이념, 주된 정서 등에 따라 분류되고 명칭이 부여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범주 가운데 문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15) “Le fait d’écrire en français incite les auteurs à aller plus loin dans la critique. L’arabe – la langue de Coran – se prêtait moins au jeu de la dénonciation.”, Tahar Ben Jelloun, ‘Défendre la diversité culturelle du Maghreb’, *op. cit.*, p. 98.

없으면서도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 문학, 프랑스 문학 등 지역을 경계로 설정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적·시간적 경계를 설정하고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학 활동을 한 단위로 묶어 총체적으로 그 특성을 논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단위의 범주화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제기하는 것이 아마도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일 것이다.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은 마그레브라는 특정 지역을 한 단위로 설정하는 범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문학 생산물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 출판, 독자 등 모든 측면에서 마그레브 지역보다는 프랑스와 더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마그레브 문학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과연 개별적 단위 규정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통상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을 구성하는 자료체는 마그레브 지역의 모든 문학작품을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실체는 그렇지 않다. 우선 프랑스가 이주민 식민 정책을 실시했던 알제리 문학에서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로서, 1차 대전 이후 알제리작가협회 Association des Ecrivains Algériens 를 결성하여 활동했던 프랑스 이주민 작가들이나, 알제 Alger 에서 1936년 샤를로 Charlot 출판사를 설립하여 활동했던 프랑스 이주민 작가들의 작품의 경우가 있다. 이들의 작품은 알제리 문학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프랑스 문학의 일부로 편입된다.¹⁶⁾ 그러므로 마그레브 문학은 작가의 “국적”에 따라 경계가 설정되는 범주이며, 마그레브 태생의 작가들이 생산한 작품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그레브 작가들이 마그레브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따라 프랑스어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프랑스

16) 참조, *Manuel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ome VI. De 1913~A nos jours, Paris, Les Editions Sociales, 1982.

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다. 예컨대 장 아무루슈 Jean Amrouche 처럼 파리에서 활동했으며 스스로 프랑스 작가라고 규정했던 경우나, 알제리를 떠나 외국에서 생활하며 2005년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으로 선정된 앗시아 제바르의 경우 과연 마그레브 문학의 범주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현재 프랑스에서 출판되고 있는 마그레브 이민 2세대의 작품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데,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마그레브인이라는 이유로 프랑스에 귀화한 이들의 작품을 마그레브 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마그레브 이민 2세대를 지칭하는 뵈르 *beur* 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을 봤을 때, 이들의 작품은 프랑스 문학도 마그레브 문학도 아닌 별개의 범주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⁷⁾

모든 문학 활동이 프랑스 문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 또한 마그레브 문학을 하나의 자율적 범주로 논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프랑스어 글쓰기는 단순히 언어를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문학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그레브 전통 아랍어 문학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소설 장르가 프랑스어 문학에서는 주된 장르가 되었다는 것은 프랑스 문학의 절대적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은 마그레브 지역의 문학 전통보다는 프랑스 문학 전통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작품의 출판, 유통에서 프랑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위상을 모호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알제리, 모로코 작가들의 서지 목록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마그레브 국가들에서 문학 서적의 자유로운 출판을 기대하기는 어

17) 참조, Michel Laronde, *Autour du roman beur*, Paris, L'Harmattan, 1993.

려웠으며, 설령 출판한다고 해도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¹⁸⁾ 그 결과 작품의 절반 이상이 라르마탕 L'Harmattan, 드 노엘 De Noël, 쇠이유 Seuil 와 같은 파리의 출판사들에서 발간되었으며, 지명도가 높은 작가일수록 그 빈도는 더욱 높았다. 아시야 제바르, 타하르 벤 켈룬과 같은 작가들은 자국에서 출판된 작품이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독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출판 과정 혹은 작품의 평가에서 개입되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영향 또한 지적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초기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은 프랑스 지식인들에 의해서 출판되고 전파되었는데, 이들은 피식민지 사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단순히 이국적 정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작가를 선택해서 출판하기도 했으며, 문학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이념적 측면에서 작품을 선별함으로써 전파 과정을 왜곡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공식적 차원에서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의 위상은 어떤 것인가? 프랑스 내에서 마그레브 문학은 대중문학, 지방문학 등 정식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하위문학 생산물로 여겨지고 있다.¹⁹⁾ 그러므로 문학사전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만 예외적으로 언급되는 주변 현상인 것이다. 뒤부와 J. Dubois 가 정의하듯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은 먼저 그 존재의 인정 자체가 요구되는 “지배와 억압의 전형적 관계”에 놓인 소수자문학이다.²⁰⁾ 또 한편으로 그것은 마그레브 국가들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8) 이처럼 열악한 출판 상황은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제리의 경우는 극단적인데, 1999년 유네스코 보고서에 의하면 알제리에서 출판 등록이 된 서적의 수는 300권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문학작품의 수는 해마다 10권이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조, Achour Cheurfi, *Ecrivain Algériens: Dictionnaire biographique*, Alger, Casbah Editions, 2004, p. 9.

19) 참조, Bernard Mouralis, *Le littératures dites marginales ou les 'Contre-littératures'*, *op. cit.*, pp. 31~40.

20) *Ibid.*, p. 38.

긴 역사를 통해 누적되어온 방대한 베르베르어와 아랍어 문학의 유산과 비교한다면, 최근의 현대사 속에서 단기간에 생산된 프랑스어 문학의 대표성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다. 더구나 민중 계층에 폭넓게 읽히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결 론

피식민지라는 억압적 상황에서 발생했던 마그레브 지역의 프랑스어 문학은, 언어는 물론 모든 문학 활동의 측면에서 작가가 속한 마그레브 지역의 문학 전통보다는 프랑스 문학 전통에 더욱 가까워 그 정체성과 위상이 모호하며, 과연 하나의 자율적 문학 범주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프랑스어 사용은 표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외에도 마그레브 밖으로 진출해서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의 수가 독립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작가들의 선택만으로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이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율적 문학 범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아마도 그 미래는 마그레브 작가들의 작품이 자국에서 얼마나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마그레브 작가-독자의 공동체를 상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마그레브 문학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²¹⁾

21) “Seule cette attente du public permet, à mon sens, de parler de littérature maghrébine, parce qu’elle suppose une communauté écrivains maghrbins-lecteurs maghrébins, vraie ou supposée, dans laquelle seulement un fonctionnement littéraire proprement maghrébin est concevable.”, *Ibid.*, p. 7.

□ 참고문헌

- Manuel d'Histoire Littéraire de la France*, Tome VI. De 1913~à nos jours, Paris, Les Editions Sociales, 1982.
- BONN, Charles, *Le Roman Algérien de langue française; vers un espace de communication littéraire décolonisé*, Paris, L'Harmattan, 1985.
- CHIKHI, Beïda, *Littérature Algérienne: Désir d'histoire et esthétique*, Paris, L'Harmattan, 1997.
- CHITOUR, Chems Eddine, *L'Algérie: le passé revisité, Une brève histoire de l'Algérie* Alger, Casbah Editions, 2004.
- CHEURFI, Achour, *Ecrivain Algériens: Dictionnaire biographique*, Alger, Casbah Editions, 2004.
- DÉJEUX, Jean, *La littérature algérienne contemporain*, PUF, coll. "Que sais-je", n° 1604, 1975.
- GAFAITI, Hafid, *Les Femmes dans le roman algérien*, Paris, L'Harmattan, 1996.
- GONTARD, Marc, *Le Moi Etrange: Littérature marocaine de langue française*, Paris, L'Harmattan, 1993.
- LACOSTE, Camille, Yves Lacoste, *Maghreb, peuples et civilisation*, Paris, La Découverte, 2004.
- LARONDE, Michel, *Autour du roman beur*, Paris, L'Harmattan, 1993.
- MOURALIS, Bernard, Les littératures dites marginales ou les 'Contre-littératures', Henri Béhar et Roger Fayolle(sous la direction de), *L'Histoire littéraire aujourd'hui*, Paris, Armand Colin, 1990, pp. 31~40.
- SEGARRA, Martha, *Leur pesant de poudre: romancières francophones*

du Maghreb, Paris, L'Harmattan, 1997.

TROIN, Jean-François(sous la direction de), *Le Grand Maghreb*, Paris,
Armand Colin, 2006.

«Résumé»

La littérature maghrébine d'expression française: son identité ambiguë

KIM Jungsook
(Université Pai Chai)

La littérature maghrébine d'expression française ne semble pas susciter chez les chercheurs coréens l'intérêt scientifique qu'elle mérite. La littérature des trois pays du Maghreb que sont l'Algérie, le Maroc et la Tunisie, anciennement sous domination française, impose sa présence, non seulement par le nombre important de ses auteurs, mais aussi par son dynamisme. L'objectif de cet article est d'effectuer une étude sur l'évolution de cette littérature pour revoir une des problématiques du développement de ce courant littéraire.

Cette jeune littérature a émergé au début du siècle dernier, et s'est véritablement développée dans la dernière période de la colonisation, dans les années 50. Les œuvres de cette époque mouvementée, marquée par les luttes pour l'indépendance nationale, appartiennent souvent à une littérature que l'on peut qualifier d'engagée, dans laquelle s'éveille le sentiment de l'identité nationale par la révélation de la réalité de la société coloniale. Si le problème de l'acculturation et la retrouvaille de

l'identité perdue constituent les thèmes principaux des romans, l'état d'arriération des colonies n'a pas échappé au regard critique des auteurs. Les années soixante-dix et quatre-vingt voient un essor imprévu de la production littéraire en français avec l'arrivée d'une nouvelle génération d'écrivains pour qui l'écriture en français représente un choix conscient.

Une question fondamentale se pose alors: la littérature maghrébine d'expression française peut-elle constituer une catégorie littéraire à part entière? Les écrivains, éduqués au sein du système scolaire français, ont souvent une relation fusionnelle avec la France. Leurs œuvres produites en français et selon des modèles littéraires français s'éloignent de la tradition littéraire maghrébine. Et publiés et diffusés en France, les romans des auteurs maghrébins semblent viser plus le lectorat français que celui du Maghreb. Cette situation soulève la question de l'identité du mouvement littéraire. Pour pleinement s'affirmer, ne doit-elle donc pas aussi acquérir la reconnaissance de la communauté des lecteurs maghrébins?

주제어 : 프랑스어권 문학, 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학, 알제리 프랑스어 문학, 문학의 범주

mots-clés: la littérature francophone, la littérature maghrébine d'expression française, la littérature algérienne d'expression française, la catégorie littéraire

투고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일 : 2009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5일